

백승근 대광위원장, “광역교통시설 건설,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”

- 24일 광역교통시설 사업시행자 간담회 개최… 고강도 방역·안전강화 만전 강조 -

-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4일(월) 광역교통시설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, 광역교통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.
- 백 위원장은 서울시 등 9개 시도로부터 별내선 광역철도, 대구·경북 안심-하양 광역철도, 부산 사상-하단 도시철도, 광주 2호선, 서대전IC-두계3가 광역도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26곳의 광역교통시설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뒤,
 - “광역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,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업관리를 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백 위원장은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근로자 간 코로나-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,
 - “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높여 철저하게 관리 해줄 것”을 요청하며,
 - 대광위도 “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2022. 1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